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9호 【루계 제24927호】 주체104(2015)년 5월 29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꾸리고있는 종합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꾸리고있는 종합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재일동지, 김여정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양묘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인민군대에서 새로 꾸리고있는 종합양묘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10월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도 현대적인 양묘장을 꾸릴데 대하여 주신 교시에 따라 일떠서고있는 종합적인 나무모생산기지이다.

부지면적이 200정보인 종합양묘장은 재배구, 파종구, 채종구, 풍토순화구, 품종보존구, 야외재배장, 원형삽목장, 온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림 및 원림조성에 필요한 묘목들을 대량적으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나무모생산기지로 일떠서고있는 양묘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꾸리고있는 종합양묘장은 한생토록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조국강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시기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양묘장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신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할수 있는 종합적인 양묘장을 잘 건설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3,000㎡의 면적에서 한해에 수십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게 건설한 묘목온실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나무모키우기에 적합한 온습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자동적으로 조종할수 있는 온실환경조종체계도 잘 구축해놓았다고 평가하시였다.

양묘장에서 우리 나라 그 어디서나 재배할수 있고 빨리 자라며 발열량이 높은 참대버드나무를 비롯하여 경제적가치가 큰 좋은 수종의 나무모를 키우고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있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나무모영양단지생산공정도 손색없이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이 종합양묘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양묘장의 관리운영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산림복구전투를 위한 선결조건이며 병기창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이 양묘장을 현대적으로 더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해에 1,000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도록 온실을 더 짓는것을 비롯하여 생산기지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종합양묘장에서 용재림조성에 필요한 묘목들은 물론 관상적가치가 있는 나무모들을 더 많이 키워내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나무심기를 하기 위한 방법을 완성하며 여러가지 재질로 나무모용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양묘장이 나무모생산기지인 동시에 과학연구 및 보급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할수 있게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시설들도 갖추어놓으며 아래단위들이 묘목생산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할수 있도록 우리 식의 과학연구 및 보급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절대로 무책임하게 후대들에게 벌거숭이산을 넘겨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엄혹하면서도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인 산림복구사업은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사업인것만큼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두해사이에 덕을 볼수 있는 사업으로 여기고 쟁개비끓듯 하여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요한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고, 심은 대수나 장악하고 사름률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않는것은 당정책에 대한 립장과 관점이 바로서있지 않은 그릇된 태도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린 나무모를 심어 거목으로 자래우기까지는 많은 품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산과 들에 땀과 열정을 바치며 여기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애국주의는 조국의 나무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키우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과 군인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어 그들이 드높은 애국심을 안고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연과의 전쟁인 산림복구사업을 중요한 정책적, 전략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인민군대가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애국림으로 전변시키는데서 기치를 들고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곳 종합양묘장의 종업원들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위업을 끝없이 빛내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중앙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자유민주당대표단과 뻬루정당, 로씨야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자유민주당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지역정책, 북방 및 원동문제위원회 위원인 이완 아브라모브 단장이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에게 전달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뻬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과 로씨야 똠스크시 막씨마유한책임회사 사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들을 뻬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헤나로 레데스마 이스끼에따와 로씨야 똠스크시 막씨마유한책임회사 사장 페쟈예브 안드레이 표도로비치가 해당 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관계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뻬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헤나로 레데스마 이스끼에따는 23일 선물을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혁명적당건설의 숭고한 귀감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인 6월 19일에 즈음하여 뻬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그이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훌륭히 계승해나가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이께 삼가 선물을 드린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제10차대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알좌자이르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제10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제10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귀 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귀 당을 더욱 강화하고 민족적단합과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귀국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4(2015)년 5월 28일 평 양

완벽한 성공을 안아오시는 정치의 거장

국제사회계가 한결같이 격찬

국제사회계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도전과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조선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방식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영상이 수록된 영화들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그이는 가장 인민적인 령도자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안에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신다.

지중해개발은행 리사장인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은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정치방식을 보며 인상깊이 받아안은 느낌은 그이이시야말로 첫째,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사상리론의 대가이시라는것, 둘째, 황홀함의 극치를 이루는 가장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지니신 매혹적인 정치가이시라는것, 셋째, 다재다박하신 신비한 두뇌의 소유자이시며 일단 구상하신것은 반드시 최상의 수준으로 해제끼시는 제일의 창조자, 실천가이시라는것, 넷째, 무비의 담력과 배짱, 단호하고 령활무쌍한 기질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민족존엄의 최고수호자이시라는것이다.

총체적으로 그이는 세계가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 같으신 백두산혈통의 절세위인이시며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이시라는것이다.

인도네시아신문 《인터내셔널메디아》는 김정은령도자의 정치특징은 철학적사색으로 정화된 정치라고 하면서 2012년 4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이의 첫 공개연설에는 군력이 약하면 나라의 자주권도 생존권도 지킬수 없으며 나중에는 제국주의의 롱락물로, 희생물로 되고만다는것을 말해주는 조선의 력사와 국제사회의 현실에 대한 심오한 정치적분석, 선군정치에 대한 명철한 정치적판단이 깔려있다고 평하였다.

로씨야신문 《웨쩨란》은 김정은령도자의 정치는 결심이 확고하고 신념이 투철한 정치라고 하면서 그것은 2012년 12월 조선에서의 위성발사과정이 뚜렷이 보여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한 도전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준엄하였지만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추호도 흔들림없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도록 하심으로써 조선은 한다면 하는 나라라는것을 세계에 다시금 과시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라오스신문 《쫑탑빠싸손라오》는 김정은령도자의 정치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신묘한 정치라고 하면서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끊임없는 조미대결전에서 그 깊이와 폭을 알수 없는 지략으로 미국을 수세에 몰아넣으신다, 그이께서 오랜 침략전쟁경험을 자랑하는 미국의 《로장》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조미대결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시는데 대하여 세계가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서술하였다.

먄마신문 《더 뉴 에이쥐》는 김정은각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3년, 이 나날 세계는 나라의 군력을 철통같이 다지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은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완벽하게 지켜나가시는 걸출한 최고사령관, 병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뜨거운 동지애에 기초하여 전군을 전우부대로 다지시는 불세출의 최고사령관, 군대를 앞장에 세워 조국수호뿐아니라 경제건설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시는 희세의 최고사령관의 모습을 보았다고 전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각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그이의 현지지도는 인민적이고 다심하신 모습으로 일관되여있다.

그이께서 강조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인민생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느낄수 있다.

김정은각하의 모든 풍모가 다 특출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혹적인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결한 인격과 덕망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과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천만군민은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왔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희세의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최후승리를 앞당기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감사문을 받아안은 당일군들과 청년동맹일군들의 반향

선군혁명의 척후대로 억세게 자라나도록

흥분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

백두산의 청신한 정기를 지니고 나라와 민족의 꽃으로 활짝 피여나는 우리 청년들의 소행이 얼마나 대견하시였으면, 미덥고 끝끝한 천하무적의 청년대군의 모습에서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느끼시였으면 그들을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동지적인사까지 보내시였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은 우리 당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당, 군, 청중시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 청년사업에 더 많은 품을 들이도록 적극 떠밀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청년들을 적극 내세워주며 청년들과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얼마전에 진행된 청년미풍선구자들의 회합은 우리 청년들이 선군청년전위의 고상한 미풍을 높이 발양해나가도록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의주군체신소 로동자 배은순동무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다음날 많은 지원물자를 준비해가지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어 수십명의 청년들이 백두대지로 달려갔다. 청년미풍선구자들의 소행에 감동되여 박천군의 중학교졸업생 24명이 사회주의협동벌로 탄원하였으며 룡등탄광의 27명 청년들이 부끄럽게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지하막장에서 김광철청년돌격대의 기발을 높이 휘날려가고있다.

청년들속에서 높이 발휘되는 아름다운 소행들은 청년중시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의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은정의 결과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명심하고 도안의 청년들이 선군혁명의 척후대, 익측부대로 억세게 자라나도록 청년동맹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짜고들어 진행하겠다. 청년사업을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이 사업에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겠다.

청춘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선렬들의 넋을 이어 오늘의 총공격전의 선봉에서 값높은 위훈을 떨치도록 적극 떠밀어주겠다.

그리하여 신의주학생소년궁전건설과 신의주경기장개건전투를 비롯한 도안의 주요전구들에서 청년동맹기발이 더욱 세차게 나붓기도록 하겠다.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황관석

미덕의 화원을 더 아름답게

20살 꽃나이에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고있는 《처녀어머니》의 소행을 훌륭한 미덕으로 높이 내세워주신 감사문의 글줄은 새길수록 가슴뜨거워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의 리상과 포부, 열정과 기백은 혁명의 요구, 조국의 전진과 결부되여야만 참되고 아름다운것으로 빛날수 있으며 이렇게 되도록 이끌어주고 꽃피워주는것이 바로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의 임무입니다.》

우리 구역당일군들은 《처녀어머니》인 천리마구역 사회급양관리소 로동자 장정화동무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처녀가 7명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여 헌신하고있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앞에 절로 머리가 숙어지군 하였다. 사회주의미덕의 화원에 피여난 또 한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보며 이런 훌륭한 청년들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군 하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한 청년들의 성장에서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을 헤아려보시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동지적인사를 보내주시였으니 이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활짝 꽃피워나가는데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넣겠다.

청년들을 당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청춘궤도에 세워주며 청춘시절에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도록 잘 이끌어주겠다. 《처녀어머니》와 같은 미풍선구자들이 더 많이 배출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자랑인 미덕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천리마구역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성권

참된 인간, 훌륭한 젊은이들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온 나라 청년들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받으셔야 할분은 우리 원수님이신데 오히려 훌륭한 청년들의 성장에는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며 은정넘친 감사문을 보내주실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감사문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가슴은 청년사업을 하는 긍지와 영예로 설레이고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쳐갈 맹세로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에서는 혁명학교과정안을 잘 만들어 모든 청년들을 당이 바라는 참된 인간,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모든 청년동맹조직과 청년들을 쇠소리나는 전투대오로, 열혈의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겠다.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맞이 나도록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 모든 동맹원들을 총알처럼 땅땅 여문 알찬 청년전위, 안팎으로 멋있는 참된 인간으로 키워내겠다.

우리 청년들가운데는 교양개조하지 못할 청년이란 단 한명도 없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한번 교양하여 안되면 열번, 백번 교양하여서라도 청년들모두를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키워 청년미풍선구자대렬을 계속 늘여나가겠다.

평양과 우리 도는 멀리 떨어져있지만 도안의 청년들모두의 순결하고 피끓는 심장은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는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굳건히 이어져있다.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그리며 원수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비롯한 시대의 진군가를 더 높이 부르고있는 우리 청년들이다.

우리는 도안의 청년들의 앙양된 정신력을 더욱 분출시켜 그들모두를 당이 바라는 참된 인간,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청년미풍선구자들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모범적인 단위로 만들겠다.

함경남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한인철

긍정창조의 불길이 되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문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우리 공장 청년동맹일군들의 가슴은 그 사랑, 그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해나갈 불같은 맹세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사문에서 청년동맹조직들은 정의감이 강하고 아름다운것을 열렬히 지향하는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찾아내고 일반화하며 뒤떨어진 청년들을 교양개조하는데 힘을 넣어 청년미풍선구자대렬을 계속 늘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청년동맹원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우는데 동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온 공장에 긍정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겠다.

우선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이 초급조직을 화목한 집단으로 꾸리고 이끌어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기관차가 되여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행동으로 동맹원들을 감화시키고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켜나가도록 하겠다.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동맹원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찾아내고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겠다.

다추다기대운동과 청년돌격대활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통하여 동맹원들속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며 모든 청년동맹원들을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힘차게 부르며 더 높은 생산실적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로력혁신자들로 키워나가겠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최영찬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해갈 결의에 넘쳐있다.
—사동구역 리현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까뜨만두

네팔대통령
박사 람바란야다브각하

나는 네팔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새롭게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4(2015)년 5월 28일 평 양

바 꾸

아제르바이쟌공화국 대통령
일함 알리예브각하

나는 아제르바이쟌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4(2015)년 5월 28일 평 양

박봉주총리

평안남도내 농장들 현지료해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내각총리가 평안남도내 농장들의 영농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도내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인 모내기를 제철에 무조건 끝내기 위한 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총리는 숙천군 백암농장,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문덕군 상북동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가물이 지속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받아들여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주었다.

농장들에서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이 과시되도록 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로력조직을 짜고들며 선진적인 모기르기와 영양단지모에 의한 논벼 소식재배방법으로 모내기를 질적으로 끝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현지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과 자재, 비료를 원만히 대주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협의되였다.

박봉주총리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영농실태 현지료해

깨우쳐주신 심오한 리치

이 땅에 고난과 시련의 나날이 흐르고있던 주체86(1997)년 3월 어느날이였다.

한 책임일군은 눈물이 그렁해서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도 냉이무침을 밥반찬으로 드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일군들은 모두 눈굽을 적시였다.

언젠가도 일군들에게 냉이뿌리를 캐서 만든 반찬이 맛이 있다고 하시면서 냉이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그이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백두산시절에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우던 일을 자주 회고하시면서 때로는 그런것을 캐다가 반찬을 만들어 잡수어보시고 맛이 변하지 않았다고,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풀뿌리맛이라고 감명깊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냉이뿌리를 캐다가 잡수신것은 바로 수령님의 그 간고처절한 항일혁명사를 잊지 못하시기때문이고 풀뿌리를 씹으면서라도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각오를 누구보다 철석같이 간직하시였기때문이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풀뿌리맛을 잊으면 혁명을 못한다고, 우리는 우유맛은 몰라도 풀뿌리맛은 알아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풀뿌리 하나에도 이렇듯 혁명의 심오한 리치를 담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그이께서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자면 풀뿌리맛도 알고 쓴것도 먹어보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리고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시면서 댁에서 마련하신 냉이반찬을 가지고가시여 인민군지휘관들에게 맛보이시며 계급의 무기, 혁명의 총대를 잡은 군인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의 근본과 혁명적사명을 잊지 않도록 마음쓰시였다.

참으로 풀뿌리맛에는 백두의 선군령장을 따라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조선혁명가들의 강쇠같은 혁명적신념과 의지가 진하게 배여있다.

풀뿌리맛을 잊지 말라.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당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억센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 떨치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앞으로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당의 결심은 우리의 실천

현장지휘부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이곳 건설장에서 현장지휘부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장을 찾아주신 때로부터 과학기술전당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현장지휘부 책임자 박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설을 짧은 기간에 다그쳐 끝낼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이어 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에 떠받들려 지난 24일현재 과학기술전당 총골조공사량은 90%계선을 넘어서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전당건물골조공사가 끝나게 되면 수용능력이 큰 숙소건설을 비롯한 앞으로의 공사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된다.

지금 공사전망은 대단히 락관적이다. 충성의 다리개건보수전투가 동시에 벌어지고 각종 뽐프장들과 분수터를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들이 일정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추진되는 속에 여러 로선의 쑥섬인입다리공사 등 전반적인 건설을 날자별, 대상별로 원만히 추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기자: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의 열의가 남다르다고 본다.

군관 계성남: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과학기술전당건물골조공사를 무조건 끝내려는것은 우리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석달 남짓이 흐른 공사과정에 일부 난관도 있었다. 수만대의 강관발대와 기중기도 부족했다. 하지만 우리 부대 장병들은 새 공법을 탐구하고 치렬한 결사전을 벌려 방대한 건물의 4층까지 도달하는 공사기간 무려 8만여㎥의 골조콩크리트치기를 추진하였다.

당의 결심은 곧 우리의 실천이고 현실이다. 우리는 기세를 늦추지 않고 며칠안으로 과학기술전당건물골조의 만장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겠다.

현장지휘부 정치일군 김성찬: 지금 온 쑥섬전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을 위해 밤낮이 따로 없이 끓어번지는 치렬한 격전장으로 되고있다.

모든 시공단위 정치부들에서는 현장의 곳곳에 전투적인 표어들을 붙이고 직관선동과 방송선전차에 의한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심장에 격동의 불을 달아주고있다.

기자: 내용과 형식이 독특한 건축물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해야 하는것만큼 질에 대한 요구수준도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한다.

질감독분과장 리선호: 건설장적으로 공사시작부터 시공단위들이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질검사지도서가 작성되고 모든 공정을 철두철미 설계의 요구대로 진행하는 질서가 확립되여있다. 질감독일군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고 건설물의 질제고보장에서 우수한 단위를 일반화하는 사업도 중시되고있다. 공정검사체계와 건설재료의 품질보증검사제도의 확립을 비롯한 건설물의 질을 높일수 있는 보여주기사업이 방법론있게 진행된 결과 건설장적으로 15만여㎥에 달하는 방대한 모래와 자갈이 모든 건설대상의 특성에 맞게 정확히 선별리용되였다. 상하수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이 맡은 지열취수뽐프장들과 륙해운성이 맡은 쑥섬인입다리구조물의 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것만 보아도 공사의 질보장에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애국의 마음을 뚜렷이 엿볼수 있다.

시공분과장 정철호: 우리는 방대한 건설량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조건에 맞게 건설기계보장과 그 리용률을 비상히 높이고 모든 건설대상에 대한 공정조직과 지도를 더욱 실속있게 짜고 들어 쑥섬을 과학의 섬으로 훌륭히 전변시키고 우리 당에 승리의 보고를 드리겠다.

뚜렷한 삶의 자욱 새기여가리

애국의 마음안고 이어가는 발걸음

◎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쑥섬전역에 뚜렷한 자욱을 찍어가는 주인공들속에는 평양시안의 녀맹돌격대원들도 있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난 두달 남짓한 기간 시안의 60여개 동, 인민반들에서 달려나간 녀맹돌격대원들의 수는 연 10여만명에 달한다.

인민봉사총국아래 옥류관과 평양면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과 평양시 락랑구역과 평천구역, 청진시 수남구역과 평안남도 숙천군 등의 수많은 녀맹원들이 건설장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였다.

그처럼 수많은 녀맹돌격대원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건설장에 달려나가 아낌없이 흘린 애국의 땀방울은 또 얼마나 소중한것인가.

보람찬 그 나날에 이들이 나른 모래와 자갈량은 무려 3만여㎥에 달한다. 어찌 그뿐이랴. 5000여장에 달하는 블로크운반과 8만여㎡의 지대정리를 비롯한 방대한 작업량을 수행한 이들의 애국의 발걸음은 오늘도 건설장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조국의 아름다운 래일이 창조되는 건설장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그들속에는 락랑구역 승리3동 박영옥동무와 16명의 돌격대원들 그리고 군인건설자들에게 매일같이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는 락랑구역 락랑1동 강선희동무도 있다.

공사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은 거창한 대건설전투장에 성실한 구슬땀을 바쳐가는 이들을 가리켜 오늘의 《남강마을 녀성들》이라고 정담아 부른다.

녀맹돌격대원들의 애국의 마음이 끝없이 이어지는 건설장에서는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혁명적열정이 더욱 더 분출되고 공사분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건설장에 흐르는 별무리

거창한 창조의 노래소리 높은 건설장에서 하루해가 저무는 때이면 또 하나의 대오가 생겨나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당에서 단단히 마음먹고 추진하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청춘의 활무대로 삼고 매일같이 이곳에 달려나오는 그들은 다름아닌 야간지원청년돌격대원들이다.

이들속에는 보람찬 로동의 하루를 보내고 건설장을 찾는 청년들과 교정에서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던 미더운 대학생청년들도 있다.

정든 일터와 교정에서 발휘하던 청춘의 열정을 야간지원전투에서도 남김없이 바쳐가는 청년전위들의 대오속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철주사범대학,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과 평양콤퓨터기술대학, 평양외국어대학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대학생청년들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의 근로청년들도 있다.

매일같이 건설장에 달려나가 야간지원전투에 앞서 쑥섬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는 사업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철주사범대학 청년대학생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공사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의 감동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어찌 그뿐이랴.

체육성과 문화성 그리고 류성지도국과 락원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의 청년동맹원들…

건설장의 꾀꼴새로 소문을 내며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야간전투에 헌신하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옥설경동무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달려나가는 이런 청년전위들이야말로 애국으로 심장을 끓이는 충정의 별무리들이 아니랴.

최신건축기술이 집약된 창조물로

과학기술전당은 21세기 주체건축예술의 척도를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건설대상이다.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베풀어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결정체로 솟아오르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는 지금 공사의 전과정이 최신건축기술에 의하여 담보되는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대적요구와 건설대상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공법들을 창안하고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 최신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기의 건축창조방식과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과학기술전당의 외형은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형상되였다.

건물의 한개 층높이는 보통건물의 3배에 달하며 내부구조와 형식도 독특하고 다양하다. 이것은 과학기술전당이 그 설계로부터 시공의 전과정에 방대한 로력과 건설기계, 공사자재가 요구되는 아름찬 건설대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렇듯 건물형식이 새롭고 규모가 큰 과학기술전당건설에 소요되는 로력과 자재소비량을 신속하고 정확히 타산하는것은 건설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다.

백두산건축연구원 건축과학리론연구실장 박인서, 국가건설감독성아래 대외건설교류사 정보조사실장 김성도, 연구사 김주현동무들과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축공학부 교원, 연구사, 대학생들은 과학기술전당건설의 방대한 시공공정관리와 자재소비량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히 분석, 타산하는 최신기술을 공사실천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건설의 속도와 질보장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이들이 과학기술전당건설실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건설정보모형화기술을 도입한 우수한 통합관리체계는 형성안그대로의 건축물외형과 그 내부의 모든 세부구조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적으로 들여다보며 대상별공사에 필요한 방대한 로력과 자재소비량을 정확히 타산하고 관리하는 현대적인 모의시공관리기술이다.

오늘 세계적으로 건설시공분야에서 기본추세로 되고있는 이 방식에 의거하면 건축과 구조, 전기와 난방, 위생설비를 비롯한 모든 세부도면들의 오유와 시공과정에 생긴 결함들을 신속히 알아내여 반복시공을 없애고 작업량과 자재소요량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의 질과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는 지금 이 방식에 기초하여 공사과정에 기록되는 일실적과 루계실적은 물론 모든 대상별건설추진정형이 손금보듯 료해분석되고 공사작전과 지휘가 보다 면밀히 안받침되고있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최신건설과학과 기술로 담보할 애국의 의지를 안고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 달려나가 기술전, 두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여러 단위 기술자, 연구사들과 교원들, 청년대학생들의 애국의 열정도 합쳐지기에 과학기술전당은 그 설계는 물론 시공과 운영의 모든 과정이 최신기술이 집약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설것이다.

일선참호에서 우리를 찾으라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돌격대원들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위훈을 떨쳐가는 주인공들속에는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도 있다. 이들은 쑥섬지구에 특색있게 형성되는 과학기술상징탑과 분수공원 그리고 쑥섬1다리와 보조건설대상을 맡고있다. 그렇듯 여러 건설대상을 맡아 수행하는 이곳 청년전위들은 그 어떤 어려운 공사과제도 빠른 속도로 손색없이 해제끼며 건설장적으로 언제나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피로써 지켜낸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아름다운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위훈을 떨치는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더없는 영예이고 자랑입니다.》

충천한 기세로 맡은 공사를 다그치는 이곳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는 남다른 자부심이 간직되여있다.

지난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고 청년돌격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것을 힘있게 과시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새로운 시대어로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청년강국, 이것은 우리 당이 발전소건설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청년들에게 안겨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였다. 이런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과감히 투쟁할 때 점령 못할 목표와 극복 못할 난관이란 없다는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며칠전, 분수공원구획안에서 종전의 구조물과 이미 굴착한 토량을 빠른 시일안에 처리할데 대한 과제가 긴급히 제기되였을 때였다. 작업량은 방대하고 공사조건도 어려웠다.

수백㎥의 버럭을 200여m나 되는 곳까지 운반해야 했다. 공사기일이 긴박했지만 린접단위들에서 하부구조 및 원림공사가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관계로 운수기재를 리용할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론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것이 로력영웅 강오필동무와 최성룡동무를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의 한결같은 의지였고 불같은 웨침이였다.

즉시에 1대대장 김현일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모두가 한마음이 되여 맞들이전에 떨쳐나섰다. 토량운반전투에 떨쳐나선 이들의 불같은 열의속에 여러날이 걸려야 한다던 작업은 불과 6시간만에 결속되였다.

분수공원구획안에서 혁신의 기상이 나래칠 때 쑥섬1다리건설장에서는 또 어떤 치렬한 격전이 벌어졌는가.

새로 설치된 가설무대우에서 7려단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힘찬 경제선동을 벌리는 속에 청년돌격대원들의 다리보콩크리트치기전투가 맹렬히 추진되였다.

한개의 길이가 수십m나 되고 중량이 10여t이나 되는 철근콩크리트다리보들이 한주일동안에 10여개나 제작된 그 나날은 새로운 시대정신창조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이들의 공격속도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아름찬 공사과제수행의 나날 최영식, 리혁, 신순철동무들을 비롯한 혁신자들의 잽싼 일솜씨에 의해 하루에 10여t의 철근이 가공되고 그 조립과 콩크리트치기에서도 새 기록이 창조되였다. 공사의 매 단계마다 선군청년전위의 이름을 빛내이며 위훈을 떨쳐가는 혁신자들이 어찌 그들뿐이랴.

남대원들 못지 않게 혁신하며 청춘의 자서전을 뚜렷이 새겨가는 1려단의 김혜성, 홍순영동무들과 7려단의 리복희, 리은숙동무들…

나서자란 고향과 생김새는 서로 달라도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끓이는 이런 청년전위들이 있기에 맡은 공사과제수행에서 언제나 우수한 단위로 손꼽히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인민의 기쁨 더해주는 흐뭇한 광경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꾸려지고있는 평양메기공장에 전례없는 흐뭇한 광경이 펼쳐졌다. 수확의 기쁨 넘치는 공장은 명절처럼 흥성거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물 절반, 고기 절반인 야외못들에서는 팔뚝같은 메기들이 물우로 금시 솟구칠듯 펄펄 뛴다. 메기들은 련일 퍼내도 끝이 없을것만 같다.

우리와 만난 공장일군은 아무리 퍼내고퍼내도 자리가 날것 같지 않아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앞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개의 못에서 보통 15~17t의 메기를 거두어들일수 있는데 이런 야외못들이 100여개나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참으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 힘을 안겨주고 기쁨을 더해주는 좋은 소식이다.

이 흐뭇한 광경은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끝없는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해 12월 몸소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메기공장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메기양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영광의 그날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메기양어를 더욱 잘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알깨우기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사업, 메기의 생육기일을 줄이고 먹이단위를 떨구기 위한 사업,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버림물의 리용률을 높이는것과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활용하여 메기의 생육에 필요한 물온도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사업 등 메기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결과 생산주기는 지난 시기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에 메기생산량은 천수백t으로 늘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양어에서도 세계적인 패권을 쥘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흐뭇한 광경을 펼쳐놓은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남다른 긍지와 자랑을 안고 품들여 키운 메기들을 한시라도 더 빨리 보내주기 위해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 선군시대에 펼쳐진 또 하나의 이채로운 풍경을 사진에 담는 우리의 마음도 마냥 즐겁다.

생산한 메기들을 한가득 싣고 수도의 학원들, 애육원, 육아원, 양로원으로 달리는 자동차들, 메기들을 받아안고 행복의 웃음짓고있는 정다운 모습들.

심장으로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웃음소리가 하늘가에 울려퍼진다.

글 본사기자 김성일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흐뭇한 불고기풍년을 마련한 평양메기공장 종업원들

평양육아원에 행복의 웃음소리 넘친다.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만들자

실리가 큰 다락밭식산림조성방법

린산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농사와 마찬가지로 산림조성도 앞선 방법을 적극 받아들일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린산군에서 받아들인 산림조성방법이 경험적이다. 그것이 바로 산에 다락밭을 건설하고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한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름률이 떨어지는 원인중의 하나는 심은 나무들이 잡관목과 잡풀들에 의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데 있다. 그래서 지난 시기 군에서는 나무를 심을 때 주위의 잡풀과 잡관목을 베여주는 작업을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갔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 잡풀과 잡관목이 자라기때문에 늘 관심해주지 않으면 사름률을 높일수 없었다. 한마디로 나무가 일정하게 자라기까지 적지 않은 품이 들었다.

사색을 거듭하던 일군들은 지난 시기 수유나무를 심던 방법에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군의 어느 한 단위에서는 수유나무를 잡풀과 잡관목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다락밭을 건설한 다음 심었는데 일정하게 자랄 때까지 주위에 풀이 없기때문에 사름률이 거의 100%였다.

다른 수종의 나무들도 이런 방법으로 심을수 있지 않겠는가.

온 나라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보물산, 황금산으로 만들데 대한 당정책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해 모색하던 이곳 일군들은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다른 수종의 나무들도 다락밭을 건설하여 심을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쥐게 되였다.

다락밭을 지대적특성에 맞게 건설하였다.

계단면의 너비를 산비탈정도에 따라 각이하게 설정하였다.

비탈도가 15° 정도인 경우 2m, 30°이상인 경우에는 1.5m로 하였다. 그것은 나무그루당 영양면적, 정보당 그루수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해빛이 잘 들게 하는데서 합리적이였기때문이였다.

가물피해를 받을수 있는 지대에서는 계단면의 안쪽에 도랑을 쳐서 일정한 량의 비물이 고여있게 해주었다.

다락밭을 건설할 때 계단면사이의 뚝에 있는 잡풀은 뽑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 돌을 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뚝을 만들어 토양씻김현상을 막을수 있었다.

나무를 심을 때 그루사이간격도 종전과 달리하였다. 비탈면방향으로 나무사이거리가 넓을 때에는 계단면방향의 나무사이거리를 좁혔다. 반대인 경우에는 계단면방향의 나무사이거리를 넓혀 정보당 나무그루수를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게 하였다.

군일군인 박창호동무의 말에 의하면 다락밭식으로 산림을 조성한 결과 사름률을 종전에 비해 1.3배이상 높일수 있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나무의 자라는 속도를 높일수 있었다.

잡풀과 잡관목이 없기때문에 나무가 자라는데 좋은 영양조건을 마련해주기때문이였다.

경험에 의하면 나무자라는 속도가 비탈면에 심었을 때보다 보통 1.5배, 창성이깔나무인 경우에는 2배나 빨랐다고 한다.

군에서는 여러해전부터 이 방법으로 수유, 창성이깔, 왕밤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나무를 심어 짧은 기간에 수천정보의 면적에 산림을 조성할수 있었다.

앞선 산림조성방법을 받아들여 자기가 사는 고장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지게 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윤용호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 청춘의 기념비를 보란듯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다그쳐 끝내며 거창한 대자연개조와 대건설의 여러 전구들에서 청춘의 기념비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전역에 결사관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청년돌격대원들, 건설자들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과시하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1호발전소언제콩크리트치기와 2호발전소건설을 본때있게 다그치고있다. 인민군군인들과 청년돌격대원들, 건설자들의 드센 공격전으로 하여 1호발전소언제는 날이 다르게 치솟아오르고 2호발전소물길굴건설은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 4월 멀고 산세험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1호, 2호발전소건설을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무조건 끝낼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의지안고 인민군군인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기한전에 발전소건설을 완공함으로써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로 전동맹을 불러일으키고 전국의 청년들을 힘있게 추동하는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 현장련합지휘부에서는 공사단계별, 대상별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데 절실히 필요한 자재보장과 수송조직을 따라세우고있다. 지휘부에서는 련관단위들에서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치도록 하는것과 함께 대상별공사진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1호발전소언제콩크리트치기공사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언제콩크리트치기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년돌격대에서는 언제좌우안에 혼합기와 압축기, 진동기, 뽐프들을 집중배치하고 규모가 큰 선별장을 새로 전개하여 타입속도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3.5배나 높이고있다.

함경남도려단이 콩크리트치기에서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려단에서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힘차게 부르며 일정계획을 앞당겨 수천㎥의 콩크리트치기를 끝내고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속도로 언제콩크리트치기를 계속 내밀고있다.

언제우안콩크리트치기를 맡은 황해남도와 평양시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도 결사의 의지를 안고 대상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지형이 불리한 언제좌안콩크리트치기를 맡은 황해북도, 자강도려단에서는 혼합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전투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여나가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2호물길굴건설장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평안북도, 함경북도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물길굴 량쪽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면서 서로 마주 향해 물길굴피복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도별자동차수송경쟁이 열기를 띠고있을 때 8.28청년돌격대관리국 운수기동려단과 량강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세멘트를 비롯한 물동수송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발전소건설에서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줄 열의에 충만된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이 언제우안에 수송로를 내고 내연기관차의 가동률을 높여 혼합공정에서 생산한 혼합물의 투입량을 늘이고있다. 언제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치솟는데 따라 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보통때에는 한주일은 걸려야 하였던 언제기중기의 해체와 조립을 3일동안에 끝내고 언제콩크리트타입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받고 공사장으로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이 첫시작부터 발전소건설에서 기세를 올리고있다. 당의 결정지시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인민군군인들은 2호발전소발전기실과 옹벽공사, 조압수조, 배수갱, 압력관로와 옥외변전소, 침수지역 살림집과 종업원살림집건설을 맡아 일당백의 공격정신, 단숨에의 기상으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지난 기간 희천2호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여러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하여 위훈을 떨친 군인건설자들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여 조압수조의 벽체, 바닥타입과 발전기실건축공사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산경사면옹벽공사를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완강한 공격전으로 세멘트와 막돌, 흔석을 비롯한 많은 량의 물동을 제때에 운반하여 옹벽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서두수좌우안옹벽공사를 맡은 인민군군인들도 장석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침수지역 살림집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좋은 곳에 위치를 잡기 위해 많은 품을 들인데 이어 건설에 필요한 블로크와 기와, 통나무생산을 다그치면서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원민의 마음안고 원림록화사업을 동시에 내밀고있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인 인민군대와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인 청년동맹이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 가운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서는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글 특파기자 전철주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결사관철의 정신 나래치는 발전소건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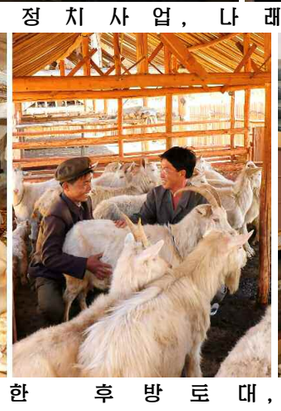
일당백의 공격정신, 단숨에의 기상으로

달리자 더 빨리, 더 힘차게

참신한 정치사업,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

청춘시절을 값높고 보람있게

건설장에 넘쳐나는 청춘들의 혁명적랑만



튼튼한 후방토대, 풍성한 식생활을

청년강국의 위용떨치며 발전소건설에서 위훈의 자욱 뚜렷이 새겨가는 돌격대원들

기적과 위훈으로 잠들줄 모르는 발전소건설장의 밤

총련결성 60돐 재일본조선인감사단 여러곳 참관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배익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결성 60돐 재일본조선인감사단이 미림승마구락부를 참관하였다.

그들은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로 일떠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는 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총련결성 60돐 재일본조선인감사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손길이 구락부의 곳곳에 어리여있다.

승마운동을 즐기는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행복하고 기쁨에 넘친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강성국가건설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우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애국지성을 다 바쳐나가겠다.

감사단은 또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육아원, 애육원 등을 참관하였다.

로씨야자유민주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이완 아브라모브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지역정책, 북방 및 원동문제위원회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자유민주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김일성동지의 생애와 그이의 가정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이밖에 대표단은 주체사상탑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국제친선전람관 등을 참관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도착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장 오병우, 규슈조선중고급학교 교장 전진성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도이췰란드조선의원단 위원장일행 도착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하르트무트 코쉬크 도이췰란드조선의원단 위원장과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응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토마스 쇄퍼 주조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펼쳐가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받아안은 총련일군들의 반향

필승의 보검으로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에서는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전총련조직, 온 동포사회가 말그대로 감격의 도가니로 끓어번지고있다. 어디서나 충정의 파도가 세차게 물결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수 있는 필승의 보검을 받아안았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내외호전광들이 숨돌릴새없이 드센 타격을 가하시며 조국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펼쳐주시는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로 품어주시는 우리 총련에 력사에 길이 남을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총련결성 4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던 감격의 그날이 눈앞에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다. 변화된 정세와 세대가 교체되는 환경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라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교시, 조국인민들이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 때 총련도 기어이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야 한다고 하시던 그 간곡한 유훈을 아직 관철하지 못한 불민한 전사들을 탓하실 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얼마나 자애롭고 위대한분이신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태양복을 누리는 해외일군된 긍지로 가슴벅차오른다. 위대한 장군님의 제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외혁명전우, 해외혁명동지답게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해 한몸 다 바칠 충정의 맹세 불타오른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을 굳게 믿고 맡겨주신 총련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감, 무거운 책임감을 심장속에 깊이 새기고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필승의 보검으로 높이 추켜들고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총련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 강위력한 해외전투부대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겠다.

모든 사업을 동포제일주의로 철저히 전환하여 약동하며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창조하겠다. 내외원쑤들의 악랄한 탄압말살책동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총련조직을 목숨걸고 사수보존하며 어머니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동포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해나가겠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무어주시고 이끌어오신 총련조직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가겠다는것을 다시한번 굳게 결의한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남승우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을 집대성하고 새로운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발전풍부하시킨 재일조선인운동의 불멸의 총서이며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원수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동지애, 동포애의 최고정화이다.

절세위인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해나가는 끝없는 영예감,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 불같은 맹세로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선전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총련의 60년력사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로 정식화해주시고 그 손길아래 이룩된 총련의 성과와 참모습, 불패의 힘의 원동력을 밝혀주시였다.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 바로 이것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총련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서한을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고 그 숭고한 의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총련의 선전문화사업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겠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국장 한동성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일대 전환을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이며 우리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받아안고 이 말의 의미를 더욱 사무치게 절감하게 된다. 지금 우리 총련 도꾜도본부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불타는 애국충정으로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절세위인의 령도밑에 애국위업의 전초선을 지켜섰다는 영예와 긍지로 가슴부풀어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가 못 나가는가 하는것은 총련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철하게 지적하신것처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가 못 나가는가 하는것은 총련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우리는 원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명심하고 혁신적인 안목과 참신한 일본새, 로숙하고 능란한 사업방법으로 약동하며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창조해나가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늘 동포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자, 선전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겠다.

동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함으로써 동포들이 총련조직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며 의탁하도록 하겠다.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그 어느 곳보다도 우심한 도꾜지역에서 애국의 고귀한 전취물들을 피로써 지켜나가겠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회주의조국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한다.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 황명

애국의 주추돌들을 더 많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교육사업을 총련의 중심과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커다란 감격과 충정을 안고 전달받았다. 자자구구 새길수록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속에 흘러온 총련의 60년력사가 한없는 긍지속에 더듬어지고 절세위인들의 간곡한 유훈과 숭고한 의도를 철저히 관철해나갈 충정의 결의로 가슴벅차오른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켜나가는 교육일군의 한 사람으로서 더더욱 어깨가 무거워진다.

민족교육사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영원한 생명선, 뿌리이며 총련의 중심과업이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대로 민족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워 조국애와 민족성을 심어주는데 큰 힘을 넣으며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겠다.

다음해에 우리는 대학창립 60돐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대학력사의 갈피마다에는 동포대학생들을 애국의 신념과 의지가 투철한 민족간부로, 총련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새 세대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웅심깊은 사랑과 보살피심이 어려있다. 그 숭고한 뜻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들은 미더운 민족간부, 애국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 그들이 애국의 드놀지 않는 기둥이 되고 주추돌이 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앞장에서 믿음직하게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장 장병태

애국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에서는 청년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심없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의 대를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 교대자들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조청일군들과 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서한을 바로 우리 새 세대들이 애국투쟁의 맨 앞장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창조해나가라는 애국의 호소로 받아안았다.

그렇다. 조청조직이 활발히 움직여야 애국운동이 생기에 넘쳐 기세높이 전진할수 있다.

원수님의 서한을 받아안고 우리 조청일군들의 사명감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조청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조청원들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의 대를 이어나갈 믿음직한 교대자,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가겠다. 모든 동포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조선사람으로서의 근본을 잊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사업을 한시도 중단없이 진행해나가겠다. 그를 위해 동포청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일하며 그들을 애국운동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워나가겠다. 청년강국의 위대한 모습을 펼치는 조국청년들처럼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조국인민들의 총진군에 발맞추어 어버이장군님의 유훈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제낌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겠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주

《싸드》배치책동에 대한 굴종적태도를 비난

남조선의 참여련대가 21일 미국의 《싸드》배치책동에 대해 굴종적태도를 취하고있는 괴뢰당국을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최근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싸드》의 남조선배치문제를 로골적으로 들고나오고있으나 이에 대해 남조선당국이 《공식협의하거나 론의하지 않았다.》고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싸드》는 그 특성으로부터 언제든지 타격을 가할수 있는 공격적인것으로 하여 많은 론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싸드》의 위험성은 이미 확인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배치를 위한 부지조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이 《싸드》의 배치문제를 들고다니는것은 일본과 함께 지역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위한것외에 다름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싸드》배치를 반대할것을 요구하였다.

분노한 민심의 폭발

친미사대와 반공화국대결정책,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내외에서 규탄과 조소를 받고있는 《새누리당》의 대표란자가 23일 또다시 분노한 민심의 물벼락을 맞았다.

지난 17일 이자는 광주인민봉기자들을 추모하는 전야제에 낯짝을 들이밀었다가 참가자들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물벼락만 들쓴채 뺑소니쳐 웃음거리로 되였다. 그쯤했으면 제몸값을 알았으련만 이자는 경상남도 김해의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이전 《대통령》 로무현사망추도식에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소낙비맞은 수탉꼴이 되였다.

로무현을 죽음에로 몰아간 패거리들이 그 무슨 《추도》를 한답시고 나타났으니 왜 분노하지 않겠는가.

10.4선언이 채택되자 리명박역도와 《한나라당》패거리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폭발적으로 높아가는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지지기운을 억누를 심산으로 《북에 퍼주기를 한 빨갱이》니, 《북로동당 대변인》이니 하며 로무현을 마구 헐뜯었다. 나중에는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 초불투쟁의 《배후세력》으로 몰아대거나 청와대기록물루출사건, 불법자금사건과 같은 모략사건들까지 날조하는 수법으로 압박을 가함으로써 끝내 그를 죽음에로 몰아갔다.

이 보수패거리의 악습을 그대로 넘겨받은 《새누리당》 대표가 뻔뻔스럽게도 《방문해야 할 곳을 찾는것》이라고 너스레를 피우며 《추모》놀음을 연출하였다. 이 철면피한 광대극에 환멸을 느낀 로무현의 아들이 그를 향해 사과나 반성같은것은 필요없다고 쏘아주었다.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수뇌상봉대화록을 공개하고 정보원을 동원한 여론조작으로 《종북》몰이를 해댔다고 그는 폭로하였다.

망신당한 괴뢰여당 대표가 황급히 빠져나갈 때 참가자들은 《나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웨치며 물벼락을 들씌웠다. 그리하여 추모놀음으로 제몸값을 올려보려던 괴뢰여당 대표는 오히려 비난과 규탄속에 봉하마을에서 쫓겨나 줄행랑을 놓았다.

《새누리당》이 저들의 인기를 올려보려고 별의별 술책을 다하고있지만 죄악으로 가득찬 력사의 추물들은 민심의 배격으로 앉을 자리가 없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학살《정권》, 폭압《정권》 기어이 끝장내자

지난 18일 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코리아련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현 《정권》퇴진과 자기 단체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성원들은 기자회견에서 5월 18일은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난 날이라고 하면서 35년전 광주시민들이 피로써 찾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관권과 금권, 부정협잡으로 권력의 자리를 찬탈》한 불법적인 박근혜 《정권》은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들은 현 《정권》을 경제파탄과 민생파탄으로 사회를 몰락시키는 파탄《정권》, 야수적인 공안탄압과 비렬한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폭압《정권》, 3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을 무참히 수장시킨 학살《정권》, 반공화국삐라살포를 조장하고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호전《정권》,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거짓《정권》으로 락인규탄하였다.

그들은 또한 죄없이 체포한 민주인사들을 하루빨리 석방시킬것과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 죄행을 저지른 파쑈경찰들을 당장 징벌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괴뢰보수패당의 반인민적악정과 파쑈폭압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지난 5월 16일 코리아련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인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괴뢰당국의 반역적망동에 항거하여 청와대앞에서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은 《〈세월〉호 사건은 학살이다.》, 《박근혜는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힘차게 웨치며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정당한 투쟁에 괴뢰패당은 파쑈경찰을 내몰아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였다. 진압소동에 광분하던 경찰패거리들은 시위투쟁과정을 취재하던 녀성기자까지 강제로 련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격분한 시위자들이 16일 밤 종로경찰서앞에서 경찰측의 파쑈적망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자 깡패무리들은 또다시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체포소동을 벌리였다.

코리아련대 성원들에 대한 괴뢰경찰의 강제련행망동은 이달에만도 수차례에 걸쳐 감행되였다. 얼마전에 있은 민주로총의 총파업시위당시 경찰은 박근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삐라를 뿌린 코리아련대 성원들을 강제로 련행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앞에서 경찰의 파쑈적만행에 항의하고 련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리는 이 단체 성원들을 또다시 체포하였다. 하지만 경찰당국의 탄압이 련일 계속되는 속에서도 코리아련대 성원들은 조금도 굴함없이 싸우고있다.

5월 18일에 있은 투쟁도 그렇게 이어졌다.

이날 코리아련대는 기자회견에서 보수패당의 손발이 되여 미쳐돌아가는 괴뢰경찰의 파쑈적망동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사람잡이에 정신이 나간 경찰패거리들을 《광견찰》 즉 미친개경찰로 조소하면서 녀기자련행당시 경찰깡패들의 너절한 행위를 폭로하였다.

이 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은 시위진압도중 녀기자에게 달려들어 그를 련행하면서 성추행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폭로하며 단체성원들은 《불법폭력 〈광견찰〉 해체하라!》, 《녀기자성추행 폭력 〈견찰〉 당장 구속하라!》라는 구호를 웨치였다. 이날의 집회에서 한 발언자는 《정의로운 5.18항쟁에 떨쳐나선 광주시민들처럼 살인〈정권〉, 부정부패〈정권〉인 박근혜〈정권〉에 맞서 〈오늘의 5.18항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가 심장에 새겨야 할 광주항쟁정신은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인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끝장내는 투쟁을 광주항쟁처럼 벌리겠다는 결사항전의 각오이다. 광주항쟁정신을 계승한 우리 민중은 청와대앞의 광화문거리를 오늘의 금남로로 삼고 〈오늘의 광주항쟁〉, 〈오늘의 민중항쟁〉을 일으켜 반드시 박근혜〈정권〉을 끝장낼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집회장에서는 괴뢰당국을 규탄하는 투쟁구호들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코리아련대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련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성완종불법정치자금 박근혜도 수사하라!》

《학살과 부정부패의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본사기자 라영국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사회적관심을

진정으로 도와주자

외교단사업총국 일군들

인재양성을 나무를 키우는데 비유할 때 거름과도 같은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사업에서 후원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교단사업총국 일군들의 주인다운 일본새가 그것을 다시금 증명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특히 학교를 맡은 후원단체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진짜주인구실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만족이란 없다.

김형직사범대학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잘하고있는 외교단사업총국 일군들의 관점과 일본새가 바로 그렇다.

2013년 어느날 외교단사업총국의 책임일군인 심국룡동무는 대학학장 변규순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대학에서 긴급한 사업들이 제기될 때마다 운수수단이 모자라 애로를 느끼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는 학장의 이야기를 무심히 듣지 않았다. 그날 심국룡동무는 당책임일군과 자리를 같이하고 대학에 좋은 새 차를 마련해주기로 토론하였다. 심장이 발동되지 않고서는 선뜻 할수 없는 결심이였다. 그후 이곳 일군들은 품들여 좋은 차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차검사를 깐깐히 하고 시운전도 여러차례 해보고서야 마음놓고 소형뻐스를 대학에 보내주었다.

교사앞에 세워놓은 소형뻐스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교원들과 함께 대학의 책임일군들은 오래도록 차결에서 떠날줄 몰랐다. 그 새 차가 당에서 바라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달라는 외교단사업총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말없는 호소로 안겨왔던것이다.

언제나 교육사업의 주인이고 학부형이라는 관점에 서있는 후원단체일군들의 눈에는 늘 일감이 보이기마련이다.

지난해 6월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대학을 찾았던 심국룡동무는 한창 건설중에 있는 다용도야외운동장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대학의 책임일군으로부터 수십년전 꿈정을 찾으셨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능한 체육교원들을 많이 양성할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신 감동깊은 이야기를 전해들었던것이다. 그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사랑이 어려있는 영광의 대학에 훌륭한 야외운동장까지 새로 건설되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마냥 부풀어올랐다. 그는 주저없이 일감을 떠맡아안았다. 새로 건설되는 야외운동장에 고무깔판을 깔아주는 일이였다.

기관으로 돌아온 심국룡동무는 지체없이 협의회를 열고 고무깔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5월 1일경기장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을 찾아가 체육활동에 좋은 고무깔판이 어떤것인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도 해보고 그 견본들과 사진을 가져오도록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기도 하였다.

며칠후 총국의 책임일군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과업을 받은 일군들이 가져온 견본들을 내놓으며 책임일군은 말하였다.

《이건 불합격이요. 보통정도의것이 아니라 제일 훌륭한것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왜 아직도 교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옳바로 인식하지 못하고있는가. 더우기 김형직사범대학은 교원양성의 원종장이 아닌가. 그런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대학에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어야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 무엇인가 떳떳한 일을 했다고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 주인이라는 립장에서 대학사업을 진심으로 도와주자.

그의 이야기는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몇달후 야외운동장에 깔아줄 고무깔판을 싣고 대학에 찾아온 총국의 책임일군들은 설치할 때 주의할 점과 사용할 때 류의할 점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이렇게 되여 3000여㎡의 다용도야외운동장은 멋쟁이운동장으로 훌륭히 건설되게 되였다.

대학에서 교직원, 학생들을 위한 새 식당건설이 진행될 때에도 총국의 책임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수백㎥의 흔석을 보내주었고 다기능화된 교실을 꾸리는 사업이 벌어질 때에도 수십대의 액정텔레비죤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대학에 찾아갔다.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이런 미더운 일군들이 많아 우리 당의 위대한 후대사랑의 아름다운 력사는 더욱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명훈

분교에 바쳐가는 뜨거운 정

몇해전 신의주시원림사업소 로동자인 한정임동무가 두 딸과 함께 아버지의 고향인 벽동군을 찾게 된데는 까닭이 있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운신하지 못하게 된 영예군인인 아버지가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며 자주 추억을 더듬군 하였던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시대 공로자의 전형으로,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신 송련고급중학교 창주분교 교원인 김경수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교를 찾아가보았다.

오래전에 안해와 함께 산간오지에 자리잡은 분교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후대교육사업에 전심하고있는 영웅교원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산기슭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분교의 모습과 교사주변에서 바람에 설레이던 버들숲이며 살구나무와 대추나무, 복숭아나무들, 그윽한 향기를 풍기던 갖가지 꽃나무들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처럼 조국과 후대들을 위해 참되게 살고싶었다. 그는 커가는 두 딸을 둔 한 가정의 어머니였지만 많은 품을 들여가며 액정텔레비죤과 축전지, 태양빛전지판들을 비롯한 분교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훌륭한 설비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얼마후 고마운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후대교육사업을 더 잘 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영웅교원의 진정이 글줄마다에 뜨겁게 어려있었다. 한정임동무의 가정과 벽동땅의 한 분교는 서로 멀리 떨어져있어도 이렇게 맺어진 정은 나날이 더욱 뜨거워만 갔다. 분교에 무엇이 더 필요되겠는가 하고 생각하던 한정임동무는 올해에는 현대적인 콤퓨터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공민으로서 응당하게만 여겼던 그 일이 지난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될줄 그는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저는 한생 창주분교의 학부형이 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절절히 아뢰이는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어 전민이 학부형이 되여 떨쳐나 교육사업을 도와주고 떠밀어주는 이런 훌륭한 사회적기풍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새 교사가 일떠서기까지

평성시 중덕소학교에서

요즘 평성시 중덕소학교를 찾는 사람들은 불과 몇개월사이에 번듯하게 일떠선 5층짜리 새 교사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푸른색, 흰색타일들로 보기 좋게 장식된 새 교사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로 흐뭇한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걸볼안이라고 다기능화된 교실들과 실험 및 자연관찰실, 무용실, 강당 등이 그쯘히 갖추어진 새 교사의 내부는 또 얼마나 정갈하고 산뜻한지 모른다. 이처럼 훌륭한 교사를 어떻게 일떠세울수 있었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한동숙교장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교육중시사상이 이런 성과를 안아왔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군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3년전 9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이 발포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 참가한 한동숙교장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그럴수록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직접적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꼈다.

학교로 돌아온 그는 기본교사의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들로 꾸리는것과 함께 새 교사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알심있게 밀고나갔다. 4년제소학교로부터 5년제소학교로 전환되는데 따라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자면 무엇보다도 부족되는 교실문제부터 풀어야 하였다. 그렇다고 우에서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릴수 없었다.

어느날 진행된 교원협의회에서 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우리 당의 후대교육사상을 꽃피워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이며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영예로운 사업입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쳐 새 교사를 번듯하게 일떠세웁시다.》

그의 절절한 호소는 교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드디여 새 교사건설이 시작되였다. 교직원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수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한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부교장 리명옥, 교원들인 김경희, 한유라, 최미란, 최은희, 정성숙동무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힘든줄 몰랐다. 자기들의 손으로 후대들을 위한 창조물을 일떠세운다는 긍지와 보람이 가슴마다에 뜨겁게 간직되여있기에 그들은 휴식날과 명절날도 공사장에서 보내였다.

그러던 어느날 교장실로 한 인민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교장에게 나라의 왕들이 공부하게 될 새 교사건설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공사에 필요되는 골재는 전적으로 자기들이 맡겠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다른 한 인민군부대의 군인들이 공사장에 도착하였다. 의아해하는 교직원들에게 부대지휘관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라고 하면서 우리 부대의 군인들도 학교건설에서 한몫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다고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일당백공격속도로 낮에 밤을 이어가며 힘찬 전투를 벌리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교직원들은 뜨거운것을 삼켰으며 혁명적군인정신에 대해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새 교사건설은 모두의 관심속에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평성시의 책임일군들은 수시로 건설장에 나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대책을 취하군 하였다.

평성시에 출장을 왔던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도 교육사업은 전민이 학부형이 되여 도와나서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서 새 교사건설에 필요되는 자재들을 스스로 맡아나섰다. 학부형들은 또 그들대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새 교사건설에 군인들까지 떨쳐나서고있는데 우리가 가만있을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로력적, 물질적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학교자체의 힘으로 진행하려던 새 교사건설은 인민군군인들과 평성시의 일군들, 도와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들에 받들려 성과적으로 완공될수 있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교육중시사상에 떠받들려 솟아오른 새 교사에서는 학생들의 랑랑한 글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자기의 길로 나아갈것이다

미국이 요즘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우리 공화국이 완전성공한 사실이 아메리카제국의 뒤통수를 또 한번 후려친것이다.

혼비백산한 미정객들속에서는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느니 뭐니 하는따위의 비난이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여기에 일본과 남조선괴뢰들도 상전과 꼭같은 악청을 돋구어대며 아부재기를 치고있다.

병적인 거부감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것을 사사건건 범죄시하는 미국이니 만큼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 심사가 삐뚤어져 내뱉은 넉두리나 복닥소동이 새삼스러운것은 아니다. 그래 묻건대 우리 탄도탄의 파편쪼각이 미국본토나 주변나라들에 떨어지고 미국함선이나 비행기에 자그마한 흠집이라도 냈단 말인가.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제손가락이 깨끗한가부터 먼저 보라고 하였다. 도발에 대하여 말한다면 남의 땅에 침략무력을 끌고와 우리 《수뇌부제거》와 《평양점령》을 노리고 벌리는 미국의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소동보다 더 큰 도발은 없다. 그리고 때없이 핵전략폭격비행대와 핵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한 핵타격수단을 들이밀어 로골적으로 벌리는 공공연한 핵공갈소동이야말로 위협증에서 진짜위협이다. 도발을 일으키고 위협을 조성하는 주범이 그에 대응한 자위적인 행동을 《도발》로, 《위협》으로 강변하며 국제사회를 기만하고있는것은 양키식기준이 얼마나 파렴치한것인가를 다시금 립증해줄뿐이다.

돌이켜보면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장구한 세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미국이 감행한 범죄적책동은 철두철미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양키식기준에 준하고있다.

그 뿌리는 미국의 《리익》이다.

미제가 제창하는 《리익》이 어떤것인가는 1999년에 발표한 《국방보고서》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21세기에 대비한 세계전략을 밝혔다고 하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리익》에는 적대적인 지역동맹이나 패권국출현의 저지와 함께 거점시장, 전략자원에로의 제한없는 접근보장이 포함되여있다. 결국 미제가 내든 《리익》이란 곧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강화하여 제 리속을 차리는것이다.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은 그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그때문에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선반도를 통채로 병탄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이 1945년에 남조선을 강점한 후 우리 공화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내용과 방식, 기간에 있어서 가장 악랄하고 집요하며 장기적인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는것도, 론쟁거리로 될수 없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을 문제시하면서 국제화하기 위해 발악하고있는것도 여기에 기인된다.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시기 조선문제가 우리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의사에 배치되게 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처리된 때로부터 남조선에서의 괴뢰정권조작, 조선전쟁발발, 조선분렬의 장기화, 조선반도핵문제발생 등은 전적으로 국제기구의 이름을 도용하고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인 미제에 의한것이다.

미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해방된 조선인민에게 《자치능력이 부족》하기때문에 조선에 대한 국제적 《신탁통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그런가하면 남조선괴뢰정권이 유엔에 의하여 《수립》되였기때문에 남조선을 지원할 임무가 유엔에 있다고 하면서 조선전쟁에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이였다. 21세기를 전후해서는 《핵문제》, 《미싸일문제》, 《인권문제》 등 별의별 구실을 내들고 우리 《문제》를 국제무대에 끌고가 반공화국여론조성에 광분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침략자, 간섭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은폐하고 전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국제적인 명분을 마련하는데 있다. 동시에 정치와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의 포위망을 형성하여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손쉽게 달성하자는것이다.

원래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미제의 상투적수법이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 미제는 처음에는 《중립》의 간판밑에 무기를 교전쌍방에 팔아 막대한 돈벌이를 하였다. 전쟁의 마감에 전후 분배몫분할에서 한몫 얻기 위하여 《협상국》측에서 전쟁에 참가하였다.

전쟁기간 미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많은 리득을 보았으며 채무국으로부터 채권국으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도 미제는 큰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반파쑈련합국으로 행세하여 막대한 폭리를 획득함으로써 전후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제국주의우두머리로 되였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은 또 하나의 생동한 실례이다.

미제가 온갖 권모술수를 써가며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선전쟁에 15개 추종국가군대들을 끌어들인것은 동맹국들의 희생의 대가로 전쟁을 치르어보려는데 있었다.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목숨을 내대야 하는 곳에는 례외없이 추종국가군대들을 내세웠다.

수많은 《유엔군》이 포위섬멸되고 있던 총퇴각시에만도 영국침략군부대들이 퇴각하는 미군의 엄호에 나섰다가 전멸되였다. 조선전쟁에 뛰여들었던 프랑스침략군의 한 중위는 프랑스병사들은 우둔한 노새처럼 리용되고있다고 하면서 《가렬한 전투의 주요부담은 우리들의 잔등에 업혀 놀려는 미국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있다.》고 일기에 썼다.

미국의 교활한 침략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최근년간 미국이 허구적인 우리의 《위협》타령으로 세계여론을 어지럽히는 한편 《유엔군사령부》부활을 떠드는것은 그것을 아시아판나토와 같은 《다국적련합기구》로 둔갑시켜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에 써먹으려는데 있다. 급속히 쇠퇴몰락하는 미국에 있어서 저들의 군사적공백을 대신할수 있는 동맹국들의 힘이 절실히 요구된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그러나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첨예한 조선반도사태의 본질을 외곡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압박도수를 높이려고 발악한다고 하여 결코 진실이 가리워지는것은 아니다.

영국의 국제문제전문가 피니안 쿤닝함은 사회계에 전해지는 모든 소식들과 보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도발자》, 《핵위협》의 장본인으로 비난하고 미국을 가장 리성적이고 평화애호적인 《정의의 국가》로 만드는데 집중되고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날조외곡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스웨리예신문 《쉬드외스트란》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조선이 자기를 방어하고 전쟁을 억제할 목적에서 핵을 가졌다는것을 리해한다고 전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조선연구쎈터 소장 알렉싼드르 줴빈은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의 부당한 대조선정책의 산물이라고 까밝혔다.

미국의 전문기관이 전세계 68개 나라에서 6만 8 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미국을 세계평화에 대한 최대의 위협국으로 꼽았다.

오늘날 조선문제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은 수십년세월 가증되는 핵위협으로 평화애호국가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아나서는 장본인,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의 극단에로 몰아가며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주범인 미국을 단죄하고있다.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은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주권행사이다. 이번에 완전성공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통하여 세계는 우리의 전략타격수단개발이 높은 경지에 도달하였음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조치에 대해 그처럼 악의에 차서 헐뜯는것은 모략의 명수들이 고안해내고 력대 미집권자들이 강행해온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승승장구하는 선군조선에 대한 위압감과 불안감의 발로이다. 때문에 천만군민은 불에 덴 승냥이마냥 날뛰는 원쑤들의 망동에서 우리의 전진, 우리의 승리를 가슴뿌듯이 확신하고있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 그 누가 《도발》이라고 시비를 하든 《중지》하라고 고아대든 우리에 대한 불순적대세력들의 도전이 쉬임없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더 완벽하게 다지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백배천배로 강화될것이다.

이 행성우에 살판치는 부정의와 란무하는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며 보란듯이 솟구치는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배 금 희

영국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전통

조국광복회창립 79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인터네트홈페지에 《전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79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족대단결에 민족이 나아갈 길도 있고 부강번영하는 길도 있다는것은 지나온 력사발전과정에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혁명투쟁에 구현해오신분은 김일성주석이시다.

주석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나라의 해방과 민족의 번영은 민족자체의 힘, 민족단결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립장을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시였다.

주석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금으로부터 79년전인 1936년 5월 5일 조선의 첫 혁명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가 창립되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발표되였다.

조국광복회는 짧은 기간에 조선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까지 뻗어나갔으며 수많은 회원들을 망라한 범민족적조직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조국광복회의 창립과 그 활동은 조선민족대단결의 고귀한 전통으로 되였다.

그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해방후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새 사회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었다.

전후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것도,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기치아래 조선반도의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온것도 자주와 단결의 리념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빛나게 구현해오신 김일성주석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주석의 민족대단결사상은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다.

주석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 경험과 전통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구현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김정일령도자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였다.

글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밝혀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이 채택발표된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조국통일위업을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꿋꿋이 이어가고계신다.

김정은각하께서는 태양절 100돐경축 열병식장의 높은 연단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된 때로부터 79년의 력사는 민족의 운명개척도 단결에 있고 부강번영도 단결에 있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일본반동들이 군국주의재침야망에 환장이 된 나머지 완전히 분별을 잃었다. 입에서 구렝이가 나가는지 뱀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아무 소리나 망탕 줴쳐대고있다.

그 대표적인물이 바로 일본방위상 나까따니이다.

최근 일본의 한 TV방송에 출연한 그는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운운하며 《자위대》가 미군을 도와 우리의 미싸일기지를 선제공격할수 있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가소롭기 짝이 없다.

세상에 범 모르는 하루강아지라는 말이 있다더니 신통히도 나까따니에게 어울리는 소리이다.

묻건대 나까따니는 우리에 대해 알기나 하고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줴쳐대고있는가. 우리 공화국은 무진막강한 군력을 가지고있는 군사강국이다. 우리는 현대적인 각종 타격수단들로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각에 결심한대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일격에 소탕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은 세계 그 어디에 있건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 바로 그래서 일본이 하내비처럼 섬기는 미국도 우리의 비약적인 군사력강화에 얼이 빠지고 겁에 질려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지금 온 세계가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있는것은 이런 엄연한 현실때문이다.

나까따니로 말하면 그래도 일본이라는 한개 나라의 군사정책을 직접 다루는 고위인물이다. 그렇다면 이쯤한것이야 알고 입부리를 놀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군국주의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물론 지금까지 일본에서 군국주의적색채가 진하게 풍기는 망발을 마구 내뱉은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집단적자위권》을 걸고 무엄하게도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을 떠든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일본당국의 립장을 그대로 대변하였다.

나까따니가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광기어린 망발을 줴쳐댄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그 어느때보다 군국주의바람이 어지럽게 일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과거범죄력사를 외곡하면서 재침을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군사대국화와 재침을 위한 문제가 국가정책으로 상정되여 추진되고있다. 얼마전에 일본당국자들은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자위대》가 미국이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군사작전과정에 군사적지원을 할수 있게 만들어 사실상 참전권과 교전권을 복귀시켰다. 미국은 물론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명목으로 《자위대》가 해외에로 진출할수 있게 만든 안전보장관련법을 제정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일본반동들은 이 모든것을 이미전부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앞으로 일본은 어쩔수없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말려들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바라는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해외침략야망실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나까따니의 망발은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속심을 그대로 반영하여 나온것이며 공공연한 전쟁선동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그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여 우리를 선제타격할수 있다고 한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에도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야망을 한시도 버린적이 없다. 일본반동들은 지난 세기와 같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나아가서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 하고있다.

《일미방위협력지침》개정 등으로 《집단적자위권》행사의 길을 열어놓은 일본은 지나친 과신에 빠져있다. 일본은 상대를 너무나도 모르고 날뛰고있다.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를 어째볼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망상이다.

희세의 천출명장의 위대한 선군령도를 받는 우리의 강위력한 혁명무력앞에서는 그 무슨 선제공격이라는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그 어떤 요란한 무장장비도 맥을 추지 못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재침야망에 들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리 학 남

국제녀성대행진을 악랄하게 방해한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죄악을 규탄한다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 조선위원회 대변인대답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괴뢰패당이 2015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녀성대행진대표단의 활동을 악랄하게 방해한것과 관련하여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 조선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은 군사분계선을 횡단하는 국제녀성대행진이 진행되였다.

이번 국제녀성대행진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바라는 전세계녀성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 반전평화행진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였다.

우리는 온 겨레와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기대와 념원에 맞게 국제녀성대행진대표단의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보수패당은 이번 국제녀성대행진을 《친북적》이니 뭐니 하고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대표단의 활동을 로골적으로 방해하였다.

괴뢰패당은 국제녀성대행진대표단 성원들이 평양방문기간 만경대를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구한데 대해 극우보수단체들과 보수언론들을 동원하여 《종북행사》니 뭐니 하고 헐뜯으며 내외여론을 오도하는 광란극을 벌리였다.

뿐만아니라 대표단성원들이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범죄를 규탄한데 대해 북의 대남전략에 말려들어 《반미, 친북성향을 보이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고 있지도 않은 그 무슨 《북인권》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걸면서 《평화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악담질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지어 괴뢰패당은 국제녀성대행진대표단 성원들의 판문점통과를 《유엔군사령부 불허》를 구실로 가로막고 서해륙로로 받아들이고는 군사분계선일대에 극우보수깡패들을 내몰아 대행진대표단을 《북찬양단체》, 《반〈한〉, 반미, 친북단체》로 매도하는 《맞불시위》까지 벌려놓았다.

이것은 지구상에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전세계녀성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우리 겨레의 절절한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열망이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속에 진행된 이번 국제녀성대행진은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지지성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고조시키며 녀성들의 단합된 힘을 시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미국상전과 공모결탁하여 국제적으로 명망높은 세계 각국의 녀류인사들이 망라된 국제녀성대행진대표단의 정당한 활동을 시비질하고 판문점통과를 가로막아나서다 못해 극우보수단체들을 내몰아 《맞불시위》소동까지 벌려댄것은 극악한 반통일대결광들만이 할수 있는 용납 못할 망동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정의와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도 외곡할수도 없다.

괴뢰보수패당은 이번 국제녀성대행진을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악용해보려다가 오히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짐으로써 세계면전에서 망신만 당하는 꼴이 되였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국제녀성대행진대표단의 활동을 악착스럽게 방해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원흉이라는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국제적인 평화대행진의 정당한 활동까지 악랄하게 헐뜯으며 대결에 미쳐날뛰는 괴뢰패당이 최근 《6.15공동행사》개최와 《대화》재개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해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으나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반전,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동족대결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과학부문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계속할것이라고 언명

로씨야수상 드미뜨리 메드베제브가 21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과학부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나라의 경제형편은 어렵지만 정부는 과학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10년전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최근년간에 달성한 귀중한 연구자료들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기구들을 더욱 완비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핵회담에 관한 원칙적립장 천명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21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핵회담과 관련한 자기 나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서방렬강들이 이란의 군사시설들과 과학연구기관들에 대한 사찰을 강요하는 경우 그 어떤 핵합의도 이룩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훼손시키는 합의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그는 단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전쟁을 정당화해나서는 목적은 무엇인가

최근 미국내에서 2003년의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는 궤변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미공화당소속의 국회상원 의원 마코 루비오가 당시의 이라크정권이 대량살륙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것은 사실이지만 이라크전쟁은 결코 실책이 아니였으며 그 전쟁으로 세계가 보다 안전해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런가하면 이전 플로리다주지사 제브 부쉬는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있은 상태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는데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따져보면 대량살륙무기가 있었든 없었든 이라크를 침략한것이 백번 정당하다는것이다. 저들은 그 어떤 전쟁을 도발해도 전범자의 감투를 쓸수 없으며 승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식의 강도적사고방식에 따른것이다.

세상에 이런 날강도무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미국의 모략군들이 침략의 명분을 얻기 위해 꾸며낸 허위날조에 불과하다는것이 낱낱이 밝혀진지도 오래다. 당시 미국무장관으로서 유엔에서 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보유》설을 완강히 주장했던 포웰은 후날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로 되였다고 실토하였다. 대통령이였던 부쉬까지도 자서전에서 이라크침공을 《마지못해》 결심하였으며 군사력을 사용하는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루루이 변명해나섰다. 전쟁을 직접 조직지휘한 이전의 미당국자들자체가 이라크전쟁을 일으킨데 대해 변명을 늘어놓은것은 이 전쟁의 침략적성격을 감히 부정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미정객들은 이 변명마저도 부정하고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고있다.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앞으로 미국이 또 다른 부당한 전쟁을 일으켜도 정당하다는 론거를 지금부터 마련하자는데 있다.

마코 루비오나 제브 부쉬는 2016년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전에 뛰여든 후보들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들이 이라크전쟁을 로골적으로 정당화해나서는것은 매우 심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앞으로 공화당이 집권하는 경우 제2, 제3의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겠다는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여러 국제분쟁문제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난받고있는 상태에서 강경보수파들은 정권을 장악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자주권유린책동, 내정간섭책동들을 공세적으로 벌리려 하고있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또한 주요자원지대, 요충지를 든든히 장악하자는데 있다.

돌이켜보면 이라크전쟁은 미국이 중동지배전략과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이였다.

이라크자체가 원유매장량에 있어서 손꼽히는데다가 중동지역전체가 세계적인 원유매장지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등의 원유매장량은 세계원유총매장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더우기 중동지역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로 이어진 교통로의 중심이고 또 린접에 인디아양과 지중해를 련결하는 홍해, 수에즈운하 등 전략적수송통로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중요한 군사전략적요충지로 된다.

중동지역을 장악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이라크를 주요발판으로 점찍은 미국은 있지도 않는 이 나라의 《대량살륙무기보유》설을 류포시키고 그것을 제거한다는 미명하에 침략을 개시하였다.

지금 이라크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자기의 중동지배전략강행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에 더욱 든든히 자리를 잡으려 하고있다.

미국은 세계를 제패함에 있어서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있다. 이란과 수리아,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반미적인 나라들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국제무대가 언제 한번 조용한 날이 없다.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인류앞에는 엄중한 위험이 존재하고있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 나라들의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10여년간 이라크에서는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정치세력들사이, 종족, 교파들사이에 치렬한 세력다툼이 벌어지고있다. 각양각색의 무장단체들의 무정부주의적인 행동으로 무고한 주민들의 목숨이 시시각각으로 위협당하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급격히 세력을 확대한 《이슬람교국가》의 공격으로 이라크는 물론 중동지역과 세계의 안전이 크게 파괴되고있다.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침략과 전쟁, 살륙과 파괴를 비롯한 저들의 모든 범죄행위들을 정당화해나서고있다.

특히 미국은 저들의 지배주의정책실현에 맞서나가는 반미자주적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그러면서도 항상 저들은 옳고 남은 잘못했다고 하고있다. 이러한 침략론리가 점점 도수를 넘어 주권국가들을 유린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도 정당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집권계층의 머리속에 깊이 배긴 지배주의적사고관점, 힘의 만능론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에로 부추기고있다.

인류에게 큰 재난과 파괴를 몰아오는 미국의 침략전쟁의 부당성과 범죄성을 폭로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세계는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처럼 될수 있다.

그러한 비극을 더는 겪지 않기 위해서는 침략과 전쟁으로 살쪄온 미국의 자주권유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보다 강도높게 벌려나가야 한다.

전범자의 넉두리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본사기자 리 철 혁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한 노력 ‖

여러 나라들 협조

로씨야와 우간다가 19일 사회, 경제, 과학기술,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할데 관한 협조문건에 조인하였다.

같은 날 앙골라와 에꽈도르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옷수출 증대

캄보쟈에서 1.4분기에 옷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대되였다.

최근 이 나라 상업성이 밝혔다.

대규모유리공장 준공

이란의 동부아제르바이잔주에서 대규모유리공장이 새로 건설되여 준공하였다.

21일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공장에서는 년간 22만의 각종 판유리를 생산하게 된다.

체육발전노력

케니아에서 최근 체육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정부는 수도에 2개의 현대적인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고 이미 있던 경기장들을 개건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실현에 많은 자금을 할당하기로 하였다 한다.

22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콜레라방지노력

케니아에서 콜레라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최근 나라에서 콜레라가 급속히 전파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전문가들로 의료대를 뭇고 피해지역들에 파견하여 1개월내에 발병근원을 제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콜레라피해정형을 료해하고 그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게 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남 아 프 리 카 의 항

ㄱ-51083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